

EU 집행위원회, Outbound 투자에 대한 공개 협의 결과 발표

전략물자관리원 정책연구팀 | 임정현 연구원 (jhleem@kosti.or.kr)

- '24.7.23., EU 집행위원회(EC¹) 무역사무국(DG Trade²)은 EU 경제안보 패키지³) outbound 투자 백서('24.1.)⁴)에 관한 협의 결과 공개⁵)

* '24.1.24일부터 4.17일까지 outbound 투자 백서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한 결과 52개 응답 결과 도출(응답자: 기업/협회 35명, 학계/연구기관 5명, 정부/공공기관 3명, 기타 10명)

- EC 무역사무국은 동 결과를 향후 outbound 투자와 관련된 정책 개발을 위한 후속 조치에 고려할 예정이라고 보도

< 참고: EU outbound 투자 모니터링을 위한 단계별 조치 >

- ① (2024년 1월 24일) outbound 투자에 관한 백서 채택
- ② (2024년 1~4월) outbound 투자 및 관련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제안에 대한 공개 협의
- ③ (2024년 여름) 협의 결과를 평가하고 제안된 outbound 투자 모니터링 정책 검토 개시를 위해 회원국에 대한 위원회 권고안을 채택
- ④ (2025년 여름) 제안된 outbound 투자 모니터링 위험 평가 마무리
- ⑤ (2025년 가을) 추가적인 정책 대응 필요성에 대한 위원회 평가

1) European Commission

2) Directorate-General for Trade

3) European Commission, "[Commission proposes new initiatives to strengthen economic security](#)" (발표일: 2024.1.24.)

4) European Commission, "[White Paper on Outbound Investment](#)" (발표일: 2024.1.24.)

5) European Commission, "[DG Trade publishes results of targeted consultation on outbound investment](#)" (보도일: 2024.7.23.)

I 공개 협의 결과

1 outbound 투자와 관련되 주요 우려 요소

- **(정보 격차(knowledge gap))** outbound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기술 유출의 위험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에 관한 국가 간 정보 격차는 있으나,
 - 기업들은 실사, 사이버 보안을 통해 위험을 평가하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으므로 국가 차원의 outbound 투자 관련 정보 격차가 반드시 기업 차원의 인식 부족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
- **(위험 모니터링 및 평가 필요성)** 대부분 찬성하였으나 이의 실행을 위해 데이터 수집이 선행되어야 하며 위험 범주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의되어야 한다는 의견 제시
 - 기업들은 추가적인 행정 부담을 우려했으며 모든 모니터링은 엄격하되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
 - 유럽대학연구연맹(LERU⁶⁾)은 기존 연구 보안 조치와 outbound 투자 모니터링 간 관계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

2 outbound 투자 모니터링 위험 평가 범위

- **(대상 기술)** outbound 투자 모니터링 대상에 첨단 반도체, AI, 양자 기술, 생명공학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데에 대부분 동의
- **(대상 거래)** 백서에서 제안한 6가지 거래 유형⁷⁾에 대부분 찬성하였지만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인수, 합병, 그린필드 투자가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는 것에 의문을 제기
 - 특히, 응답자들은 포트폴리오 투자를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을 강력히 지지하였으며 향후 간접 투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
- **(수출통제 기준에 따른 모니터링)** 수출통제에서 사용하는 기준에 따라 outbound 투자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응답

6) League of European Research Universities

7) 인수, 합병, 자산 이전, 그린필드 투자, 합작 투자, 벤처 캐피털 투자

- 기술의 최종 사용자와 국가별 위험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, 수출통제를 우회하기 위한 투자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
- **(연구 협력 및 전문인력 이전 모니터링)** 응답자 대부분은 연구 협력 및 전문인력 이전에 대한 모니터링을 반대하였음
 - 일부 기술은 해외 공동 연구가 필수적이며 숙련된 전문인력의 이동이 혁신 역량과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라고 주장
- * 또한, 위원회 권고안에서 이미 다루고 있는 조치라고 설명
- **(정보 제공)**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기업의 행정 부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백서에서 제안한 범위에 동의하나 꼭 필요한 데이터만 수집해야 한다고 결론

〈 참고: EU Outbound 투자 백서에서 제안한 주요 정보 수집 범위 〉

- 법인의 전체 법인 소재지 및 (회원국이 이용할 수 있는 최선의 정보에 근거하여) 거래와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최종 소유자를 포함한 투자 거래 당사자에 대한 정보
- 투자의 유형과 대략적인 가치
- 투자와 관련된 핵심기술과 관련된 제품, 서비스 및 비즈니스 운영
- 투자가 완료될 예정이거나 완료된 날짜

- **(기존 수단 활용)** 새로운 규제 수단에 대해 대부분 회의적이며 수출통제, 외국인투자심사 등 기존 수단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응답
 - 특히, 기술 유출은 수출통제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고 답했음
- **(기타 의견)** 일부 응답자는 기술 범위와 위험 기준의 유사성으로 outbound 투자 모니터링과 수출통제 간 연관성이 있다고 강조
 - 또한 現 수출통제가 기술 유출 위험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며 outbound 투자 조치를 논의하기보다 EU 차원의 공조 강화 등을 통해 기존 수출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

I 결론 및 시사점

- EU 집행위원회는 금번 공개 협의에서 응답자 대부분이 outbound 투자와 관련된 위험을 인식하고 있고 이에 따른 정책 수립을 위해 백서에서 제안된 단계별 조치를 지지한다고 언급
 - EU 집행위원회는 '24년 여름까지 outbound 투자 모니터링 정책 검토 개시를 위해 회원국에 대한 권고안을 채택할 예정
- 미국, EU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핵심·신흥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outbound 투자 규제 정책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음
 - 특히, 수출통제, 외국인투자심사 등 규제 조치에 대해 동맹 및 파트너국과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바, 해당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해외 규제 개발에 지속 관심을 기울여야 함

VOID REVENUE